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아기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 학자 대축일  
제37권 45호(가해) 2017년 10월 1일

[묵상]



〈아기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교회에는 심장이 있고 이 심장에는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  
사랑이 꺼질 지경에 이른다면  
사도들은 복음을 더는 전하지 못 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며 돌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소를 포함한다는 것,  
즉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성소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마음속에서  
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녀의 자서전에서”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 미사 안내

|       |                             |                                |
|-------|-----------------------------|--------------------------------|
| 화 요 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수 요 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 요 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 요 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 요 일 | 신심 미사(첫 토요일)<br>저녁 미사(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 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 요 일 | 레지오 마리에                                                                                                                                                | 오후 8:00                                                                                       |
| 목 요 일 | 성 시간 (첫 목요일)<br>레지오 마리에<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 요 일 | 성경공부(성경통독)                                                                                                                                             | 오전 9:30                                                                                       |
| 토 요 일 | 제대회 모임(첫토요일)<br>성소후원회(첫 토요일)<br>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br>울뜨레아(넷째 토요일)                                                                                       | 오전 10:00<br>오전 9:30<br>오후 6:00<br>오후 8:00                                                     |
| 주 일   | 레지오 마리에<br>아도라떼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성소후원회 (2,3,4,5주일)<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견)<br>●꾸리아<br>●빈첸시오회<br>3째주 - ●요셉회<br>4째주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전 9:30<br>오후 1:00<br>오후 1:30<br>오후 1:00<br>오후 12:30<br>오후 1:00 |

|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               |
|-----|----------------|---------------|
|     | 오전             | 오후            |
| 주 일 | 8시(오전)~4시(오후)  |               |
| 월   | CLOSED         |               |
| 화   | CLOSED         | 2:00~7:00(오후) |
| 수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 목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 금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 토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                                                                                                                                                                    |
|----------------|--------------------------------------------------------------------------------------------------------------------------------------------------------------------|
| 토요<br>저녁<br>미사 | (연)이용식 베드로, 김금점 모니카, 박주현 마리아                                                                                                                                       |
|                | (생)황혜민 가정                                                                                                                                                          |
| 학생<br>미사       | (연)                                                                                                                                                                |
|                | (생)                                                                                                                                                                |
| 주일<br>낮<br>미사  |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리아,<br>정상문 스테파노, 이영기, 정순복 & 신대월,<br>이경석 & 지용애 & 이봉수,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br>김종환 야고버, 권순봉 요안나, 심완택, 정용선 시메온 & 김종규,<br>박덕기 카타리나 & 이강희 윤일요한 |
|                | (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 김은학 모니카,<br>박홍룡 요셉, 이미카엘 & 이마태오,<br>최옥희 데레사 & 서은희 데레사,<br>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데레사 가정                                                            |

##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 제1장

####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V.세계적 불평등

해수면 상승은 주로 해안주변에 사는 달리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이러한 불균형의 영향은 많은 가난한 이들의 이른 사망, 자원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분쟁, 국제적 논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많은 다른 문제들에서 나타납니다.<sup>27)</sup>

49.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수 십 억 명에 이르러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오늘날 국제적 정치와 경제 토론에서 이들이 언급되며 부수적 피해자로 여겨지는 않지만 그들의 문제는 부가적으로, 거의 무시해서 또는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종종 받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보면 소외된 이들의 문제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 여론 선도자, 통신 매체, 권력의 핵심들이 부유한 도시 지역에 위치하여 가난한 이들과부터 멀리 떨어져 가난한 이들의 문제에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발전에 따른 편안한 위치에서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의 결여는 종종 도시의 해체로 촉발되며 양심을 무디게 하고 현실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편향된 분석을 낳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말로는 ‘환경’을 옹호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계속>

27. 독일 주교회의의 사회문제위원회, ‘기후 변화, 세계적, 세대 간, 생태적 정의의 핵심-문제’(DerKlimawandel:Brennpunktglobaler, intergenerationalerund ökologischerGerechtigkeit), 2006.9., 28-30항 참조.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6,10-14

화답송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뎌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제 2독서 1코린토 1서(1Corinthians) 7,25-3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 18,1-5

영상제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오늘의 성가 | 토요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시작     | 243  | 243   | 321  |
| 봉헌     | 269  | 269   | 257  |
| 성체     | 298  | 298   | 284  |
| 파견     | 239  | 239   | 115  |

##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응답하기

오래 전 유학 시절에 어느 젊은 부부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7~8살쯤 되는 딸아이가 방 안에서 부산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신경에 거슬렸지만, 그 아이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을 때 갑자기 딸아이가 종이 냅킨을 들고 아빠에게 다가와 입 언저리에 묻은 음식 부스러기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이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우리는 저 아이에게 아무런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저런 것 때문에 삽니다.” 부모를 많이 힘들게 하는 아이지만, 가끔씩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힘을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면 속상한 마음이 한 번에 풀린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인간들이 거듭 잘못을 범해 속상해하시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은 그분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서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때가 되자 하느님은 이들에게도 위로와 사랑을 약속해주십니다.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제1독서)

예수님은 이런 극진한 하느님의 사랑을 어린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듯이 우리도 의심 없이 하느님을 믿고 따라야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강조하듯이 하느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제2독서)

잘 닦여서 투명하게 된 프리즘이 햇살을 잘 통과시켜 오색찬란한 빛깔을 내듯이 단순하고 온전한 마음만이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여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인들은 갈라짐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응답하여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소화 데레사 성녀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4세의 짧은 생애였지만,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삶이었기에 많은 이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응답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참된 사랑만이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 벼 꽃 같은 당신들

그래, 꽃 없이 열매 어디 있을까.

모내기 하면 가을에 절로 낱알 영그는 줄만 알았지  
벼에도 꽃 핀다는 걸 이제 알았네.

화려한 꽃도 많고 한 철 내내 피는 꽃도 있더라 만  
쌀알보다 작은 그 꽃 못 본 사람도 많다지.

너무나도 짧게 피었다 저서

농부조차 모르고 지나기도 한다지.

얼마나 많은 꽃이 저서

이 한 그릇 밥이 되었을까.

- 이영 아네스-

### 이번주 전례봉사자

### 다음주 전례봉사자

| 이번주   | 토요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다음 주  | 토요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정광미<br>프란체스카 | 이재용<br>안드레아 | 해설자   | 유지아<br>클라라  | 송인선<br>안젤라 | 남성철<br>베네딕토  |
| 제1독서  | 박진수<br>스테파노 | 김금자<br>데레사   | 신중철<br>아브라함 | 제1독서  | 박진수<br>스테파노 | 김교복<br>레오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  | 서용숙<br>에스텔  | 한경숙<br>안나    | 정명모<br>마리아  | 제2독서  | 송인선<br>안젤라  | 김금자<br>데레사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동<br>2,3반  | 제물봉헌자 |             |            | 토서<br>2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심원택 토마스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신부님 환영합니다.♡

심원택 토마스 신부님께서(부산교구)2017년 9월29일 백삼위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신부님께서 백삼위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영혼을 돌보며 성무를 잘 집행하실수 있도록 우리모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신부님 약력 소개

- 사제서품 : 1993년 2월6일
- 동래성당 보좌, 장유성당 주임, 방어진성당 주임, 천주교 부산교구 주일학교 담당, 민락성당 주임, 메리놀 병원 행정 부원장, 수영성당 주임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백삼위 성당으로 오셨습니다.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0월 4일(수요일) 추석, 아침8시30분, 저녁 7시30분
- 미사: 합동 위령미사, 미사 중 분향 및 짧은 연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 중

#### ◆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 일시 : 10월 8일 오전 10시30분~ 오전 11시30분
  - 장소 : 강당
- 주일학교에 관하여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5학년과 중,고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18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교사 명단

주일학교 담당 교사  
고등부: Angela Park, Andrew Nam,  
중등부: Jennifer Hyun,  
5 학년 : Florentius Cho, 4학년 : Susanna Kim,  
3학년 : Kelly Hyun, 1,2학년: Elizabeth Lee, Jacinta Suh ,  
밴드부 : Lydia Kim, 견진반: Sunny Hwang  
한국학교 담당 교사  
개나리 반: 김본경, 무궁화 반: 이해정, 장미 반: 서혜미,  
코스모스 반: 김기숙, 민들레 반: 류슬기, 수선화 반 :박지원,  
진달래 반: 장슬기,라일락 반: 이경, SAT 준비반 Clara Lee

#### ◆ 30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

#### ◆ 2018년 무술년(나해)달력 광고 후원 받습니다

- 신청마감 : 10월 1일(오늘 주일)
- 내용 : 성경 캘리그래피
-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 ◆성 당 홈페이지의 봉사자 명단을 갱신합니다.

(www.103skcc.org)

관계 봉사자분께서는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공지사항을 보시고 댓글이나 홈페이지 이메일로 각 분과에 구성된 봉사자분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에 마감하고 수정작업을 시작 할 계획입니다.  
●안재만 다니엘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103skcc@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 1일: \* 전신자 점심나누기 (PV2반 :육재장)  
\* 주일학교: ( 샌드위치:1,2학년 )
- 10월 8일: \* 소고기 미역국(\$3, 토남3반 )  
\* 주일학교: (카레라이스 : 12 학년 )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강순복 강인모 고은별 구자운 김대우 김병조<br>김상기 김영덕 김원모 김재희 김정엽 김정희<br>김철민 남성철 박완철 박홍룡 서용숙 안민수<br>오상준 오신재 원건희 위진록 유선식 윤화경<br>윤희동 이병우 이인석 이재철 이재욱 이주창<br>이현주 이형삼 정동규 송마이클 | 성전헌금 |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대우 김상기 김영덕<br>김원모 김재희 김정엽 김철민 남성철 박완철<br>서용숙 안민수 오신재 원건희 유선식 윤화경<br>윤희동 이병우 이인석 이주창 이현주 이형삼<br>송마이클 |
|-----------------|---------------------------------------------------------------------------------------------------------------------------------------------------------|------|------------------------------------------------------------------------------------------------------------------|
|                 | 합계:\$5,440                                                                                                                                              |      | 합계 : \$3,040                                                                                                     |
| 주일미사헌금 :\$2,943 |                                                                                                                                                         |      |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심원택 토마스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신부님 환영합니다.♡

심원택 토마스 신부님께서(부산교구)2017년 9월29일 백삼위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신부님께서 백삼위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영혼을 돌보며 성무를 잘 집행하실수 있도록 우리모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신부님 약력 소개

- 사제서품 : 1993년 2월6일
- 동래성당 보좌, 장유성당 주임, 방어진성당 주임, 천주교 부산교구 주일학교 담당, 민락성당 주임, 메리놀 병원 행정 부원장, 수영성당 주임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백삼위 성당으로 오셨습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0월 4일(수요일) 추석, 아침8시30분, 저녁 7시30분
- 미사: 합동 위령미사, 미사 중 분향 및 짧은 연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 중

◆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 일시 : 10월 8일 오전 10시30분~ 오전 11시30분
  - 장소 : 강당
- 주일학교에 관하여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5학년과 중,고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18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교사 명단  
주일학교 담당 교사

고등부: Angela Park, Andrew Nam,  
중등부: Jennifer Hyun,  
5 학년 : Florentius Cho, 4학년 : Susanna Kim,  
3학년 : Kelly Hyun, 1,2학년: Elizabeth Lee, Jacinta Suh ,  
밴드부 : Lydia Kim, 견진반: Sunny Hwang  
한국학교 담당 교사  
개나리 반: 김본경, 무궁화 반: 이해정, 장미 반: 서혜미,  
코스모스 반: 김기숙, 민들레 반: 류슬기, 수선화 반 :박지원,  
진달래 반: 장슬기,라일락 반: 이경, SAT 준비반 Clara Lee

◆ 30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

◆ 2018년 무술년(나해)달력 광고 후원 받습니다

- 신청마감 : 10월 1일(오늘 주일)
- 내용 : 성경 캘리그래피
-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성 당 홈페이지의 봉사자 명단을 갱신합니다.

(www.103skcc.org)

관계 봉사자분께서는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공지사항을 보시고 댓글이나 홈페이지 이메일로 각 분과에 구성된 봉사자분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에 마감하고 수정작업을 시작 할 계획입니다.  
●안재만 다니엘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103skcc@gmail.com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 1일: \* 전신자 점심나누기 (PV2반 :육재장)  
\* 주일학교: ( 샌드위치:1,2학년 )
- 10월 8일: \* 소고기 미역국(\$3, 토남3반 )  
\* 주일학교: (카레라이스 : 12 학년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강순복 강인모 고은별 구자운 김대우 김병조<br>김상기 김영덕 김원모 김재희 김정엽 김정희<br>김철민 남성철 박완철 박홍룡 서용숙 안민수<br>오상준 오신재 원건희 위진록 유선식 윤화경<br>윤희동 이병우 이인석 이재철 이재욱 이주창<br>이현주 이형삼 정동규 송마이클 | 성전헌금 |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대우 김상기 김영덕<br>김원모 김재희 김정엽 김철민 남성철 박완철<br>서용숙 안민수 오신재 원건희 유선식 윤화경<br>윤희동 이병우 이인석 이주창 이현주 이형삼<br>송마이클 |
|-----------------|---------------------------------------------------------------------------------------------------------------------------------------------------------|------|------------------------------------------------------------------------------------------------------------------|
|                 | 합계:\$5,440                                                                                                                                              |      | 합계 : \$3,040                                                                                                     |
| 주일미사헌금 :\$2,943 |                                                                                                                                                         |      |                                                                                                                  |

## 소돔과 고모라의 외계인

주일학교 동창인 신학생이 연극을 하는 체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 혜화동 기숙사에서 내려다보면 대학로 밤거리

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한락의 불을 번쩍거리며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며 휘청거리는 대학로의 밤거리가 신학생 눈에 그리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대학로를 직장 삼아 오간 것이 벌써 20년. 작가가 되어 서만 20년이니 관객으로, 연극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세월까지 합치면 대략 30년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1세기 대도시의 소돔은 멸망하지 않고 나날이 번성하여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규율 엄격한 신학교와 고즈넉한 혜화동성당 바로 곁에서 말이죠.

제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유흥과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당보다 재미난 일이 많았고 멀리 계신 하느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동료들의 위로가 살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공연 평계로 주일을 지키지 못해도 그만, 1년에 두 번 관공성사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시련이 다시금 저를 주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하늘을 보면 뒷북이 아플 만큼 땅에 고개를 처박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주일을 밥 먹듯 걸러도, 기도라곤 식전 기도 밖에 안 해도 저는 여전히 주님 포도나무에 간당간당 매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셨기에.

오후 세 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자비의 기도를 바칩니다. 양해를 구하기 힘든 사람과 있거나 중요한 미팅 자리가 아닌 이상 장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점심 반주가 이어지며 낮술이 될 때가 있는데 술자리에서도 목주를 꺼내 중얼중얼 기도를 바치는 저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인들은 기도 중인 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춰줍니다. 가끔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던지시 건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비의 기도를 바친 지 3년여, 저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외계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저를 보면서 가톨릭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릴 때 받았던 세례를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보잘것 없는 제 기도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응답하고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 김나영 요셉피나 / 작가

## [길을 찾는 그대에게]

반 모임에 가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원들은 기도면 기도, 나눔이면 나눔, 유창하게 잘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반원들처럼 반 모임에서 기도나 나눔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책에서 참된 나눔을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차례가 주어졌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참된 것과 진심 어린 것만을 나눈다. 둘째, 무엇보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나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훈련한다.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방어적이지 않게 간단하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듯이 담백하게 말한다. 넷째, 머릿속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지 않는다. 그 때 그 때 마음 속에 주어지는 것을 정직하게 말한다. 세련되게 말하는 것보다 서툴지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는다.” 이는 사제인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거의 15년 사제생활 동안 강론을 하다 보니 저의 말솜씨도 엄청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내 말만 하려고 하고, 화려한 언변에 점점 진심이 없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한 말에 진심은 없고 물건을 팔려는 공공이만 있는 약장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침묵하기를,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로 기도하기를 가르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말을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들읍시다.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진실된 말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누도록 합시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 묵주기도(默珠祈禱)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 선포와 수난,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에 이르는 신비를 성모 마리아와 함께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다른 말 ‘로사리오’(Rosario,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는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 신자들이 몰래 순교자들의 장미관을 모아 그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치곤 했다는군요. 이 밖에도 로사리오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 중 어려움에 봉착한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성모님께서 묵주를 주시며 묵주기도를 널리 전하라 하셨다는 전설과 도미니코 회원이 신앙의 진리를 연속하여 설교할 때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합송했던 설교 방식에 유래한다는 설, 그리고 12세기 문맹자들이 전례 중에 시편을 읽는 대신 주님의 기도 150회를 3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하던 것에서 발전되었다는 설이 대표적입니다.

어찌 됐든 역대 교황님들은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끊임없이 권장했고 오늘날 묵주기도는 수많은 사람이 즐겨 바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묵주기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이 담긴 훌륭한 기도입니다. 성모송을 바치는 가운데 사실상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이 우리 영혼의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은 우리 개인과 가정, 국가, 교회,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의 체험과 이웃의 체험, 특히 우리에게 소중하며 가장 가까운 이들의 체험들을 묵주 기도의 연속적인 신비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하지만, 이처럼 인생의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공경의 예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10번의 성모송을 한 다발의 장미로 생각하면서 바칩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월·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환희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활과 관련된 빛의 신비를, 화·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수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일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교회는 로사리오 축일을 지내고 묵주기도 성월을 정하여 묵주기도에 의한 신심을 장려합니다.

###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 )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 선포와 ( ), ( )과 승천, 성령 강림에 이르는 ( )를 ( )와 함께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9월24일 자 정답: 파견된 사람, 권리, 의무, 평신도, 교회 건설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성경 속 동식물」 37 장차 도래할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묘사하는 표범

성경에서 표범은 아주 재빠르고 위험한 맹수로 묘사되어 있다. 하바꾹은 쳐들어오는 바빌론의 기병을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날렵하고 저녁 이리보다 민첩하며 그 군마들은 당당히 내달린다.”(하바 1,8)고 표현했다. 표범은 특별히 빠르고 날랜 짐승으로 묘사된다.(예레 5,6참조)

또한 표범은 장차 도래할 하느님의 나라의 평화로운 한 단면을 묘사할 때도 등장한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이사 11,6)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보) 310-908-8823  
CA Inc.Lic.#O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떡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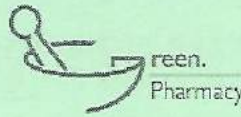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레이크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도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rn Blvd. Torrance, CA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반찬,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 중, 고, 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